나주배 풍년… 올 추석에도 인기 예감

폭염에 강수량 적었지만 작황·품질 예년과 비슷

나주시 부덕동에 있는 나주배원협 선과장에서 26일 미국으로 수출할 원황배 선과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마른장마와 더불어 한 달 넘게 지속된 폭염 속에 다른 작물과는 달리 나주배는 지난해와 비슷한 작황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잘 갖춰진 관수시설과 충분한 일조량 덕분에 오히려 당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돼 20여일 남은 추석명절 선물용으로 인기를 끌 전망이다.

26일 나주시와 나주배원예농협 등에 따르면 6~8월 강수량이 적어 수분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연일 계속된 폭염과 열대야로 과실 성장에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나주배의 작황과 품질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FTA기금으로 지원한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대부분의 과수원에 스프링클러 등 관수시설을 대폭 갖춘데다 매일 지하수 등을 이용하여 수분을 공급하면서 가뭄에 따른 큰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다.

거기에 과실 착과 이후 흑성병 등 병해충 발생이 적은데다, 일조량 또한 풍부했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불어닥친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극심한 낙과 피해나 2011년도의 저온피해가 심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홍경식 나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난 주말과 휴일에 단비가 내리고, 폭염도 한 풀 꺾이면서 과실의 성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9월 초부터 나주배가 본격적으로 출하될 것"이라면서 "갑작스런 태풍 피해만 없다면 풍부한 일조량에 의해 배의 당도가 높아져 아삭아삭한 명품 나주배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나주시는 2267ha의 면적에서 5만 여t의 배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의 배 생산 지역이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中 장자도그룹 진도 수산물 수출단지 조성 탄력

1200억 투자 해삼종묘배양장 해양수산부 허가받아

중국 (주)대련 장자도 어업집단유한공사(이하 장자도)의 진도 수산물 수출단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26일 진도군에 따르면 장자도 그룹이 지난 2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군내면 나리 일원에 1200억원을 투자해 조성하는 해삼종묘배양장 허가를 받았다.

해양수산부는 허가대상 품목을 해삼종묘 생산으로 한정하고 방류사업 참여금지, 해삼 양식기술 국내이전 프로그램 운영 등을 골자로 허가했다.

이에 따라 장자도 그룹은 1억 달러(1200억원)를 투자해 오는 2016년까지 해삼 종묘 배양장, 수산물 가공공장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장자도 그룹이 한국에 종묘를 공급하고 조도면 어업인이 해삼 종묘 생산, 육성 등 해삼 어장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장자도 그룹은 올해 말까지 1단계 해삼 종묘배양장을 건설, 종묘 1500만미를 생산할 방침이다. 2016년까지 성과를 분석해 단계별 종묘를 생산, 조도면 마을어장에 씨뿌림해 해삼을 수확할 예정이다.

수확한 해삼은 가공해 전량 중국으로 수출한다.

종묘와 채취비용을 제외하고 조도면 주민과 이익을 분배할 예정이다. 수출단지가 본격 가동되면 진도 해삼, 전복 등 청정 고가 수산물 대(對) 중국 수출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지난 2010년 진도군과 장자도 그룹간 업무협약 체결로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해 1월 185억원의 자본금으로 장자도 어업그룹 한국(주)가 설립됐다. 지난 6월 군내면 나리 일원에 해삼 종묘배양장 가공단지 부지도 매입했다.

중국 최대 민영 수산어업그룹인 장자도 그룹은 지난 1958년 설립 이후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지사 17곳과 중국내 16개성 260여 개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중국어선 단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5호 진수식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5호(1149t)가 지난 23일 사천시 (주)에이치케이조선에서 서해어업관리단 직원 설계사 선급 감리 조선소 건조공사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수식을 가졌다. 179억원이 투입된 무궁화25호는 길이 68m, 너비 12.4m의 규모에 최대속력 17노트가 가능하고 중국어선 지도 단속에 용이하도록 10m급 고속단속정(속도 40노트 이상)과 원격감시장치, 주·야간 감시 카메라, 레이더 위성인터넷통신망 등 첨단장비를 장착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kwangju.co.kr

전남 오토캠핑장 관광객 유치 일등공신

전남도는 26일 "캠핑 마니아가 늘면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남도의 캠핑장이 관광객 유치에 일등공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취사와 숙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동식 하우스라 불리는 캐러밴과 야영장을 갖춘 자동차야영장의 경우 전년 대비 30% 이상의 관광객이 늘며 휴가 막바지임에도 불구하고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예약이 밀려들고 있다.

실제로 캐러밴 10대와 야영장 40면을 갖춘 땅끝오토캠핑장의 경우 인근 땅끝관광지와 송호해변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여름 휴가지로 각광받으며 6월부터 8월 현재까지 이미 1만5000여명이 이용했다. 캐러밴 6대와 야영장 40면을 갖추고 F1경주장에 개장한 오토캠핑장은 오는 10월 F1대회를 앞두고 매 주말 국내자동차 모터바이크 경주대회가 열리고 카트 경주장이 오픈하면서 이색 숙박체험과 연계해 경기를 즐기려는 관광객이 밀려오고 있다.

이 외에도 곡성 도림사오토캠핑장과 압록유원오토캠핑장, 여수굴전여가캠핑장 등에도 더위를 피해 캠핑을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붐벼 당분간 캠핑장의 인기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난·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없애 친환경 여가문화를 즐기려는 캠핑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

강진군 나무은행 기증목 꽃길 조성 호응

강진군이 나무은행을 통해 관내 꽃길 조성에 나서 호응을 얻고 있다.

도암면 만덕리와 병영면 하고리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나무은행은 개인 기증목은 물론 각종 개발사업으로 베어지는 나무 중 보전가치가 있거나 조경수로 이용가치가 있는 나무들을 이식해 관리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강진읍 신천마을 김정운씨로부터 벚나무 107주를 기증받아 탐진 천변길에 식재했으며, 도암 신평마을 김점관씨로부터 해송 60주, 주목 30주를 기증받아 강진군 종합운동장 축구장 주변과 도암 나무은행에 식재했다.

또 대구면 저두마을 김내형씨로부터 철쭉 4만주를 기증받아 보은산 등산로길과 군동 신기마을~남미륵사 입구 도로변에 식재하는 등 총5종 4만175본을 심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군은 54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군은 가을철 꽃길조성을 위해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수국 포트묘 3800본을 받아 이식·관리하고 있으며, 칠량 목암마을 토마루 영농조합법인대표 양교일씨로부터 수국 7000본 등을 기증받아 주요 도로변에 식재할 예정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서남권 수산산업 선도 '목포 지원센터' 출범

전남 서남권 수산 식품산업을 선도할 '목포 수산 식품 지원센터'가 26일 출범했다.

목포시는 이날 오후 상황실에서 정종득 목포시장을 비롯한 이사 11명, 감사 2명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법인 목포 수산 식품지원센터 설립 발기인 총회 및 이사회를 열었다.

발기인 총회는 재단법인 설립 취지문, 자본금 출연 채택, 임원 선임 순으로 진행됐다.

이사회에서는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기구 및 정원규칙, 이사회 운영규정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재단법인은 앞으로 창업보육, 제품 성능 실험 등 식품지원센터를 실제 운영·관리하며 지역 수산 식품 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중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다음달 법인설립 허가 등을 거쳐 내년 2월 문을 여는 식품지원센터는 연산동 산62-1번지 일원 1만4567㎡ 부지에 국비 111억, 시비 111억 등 모두 222억을 들여 3층 규모로 건립됐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